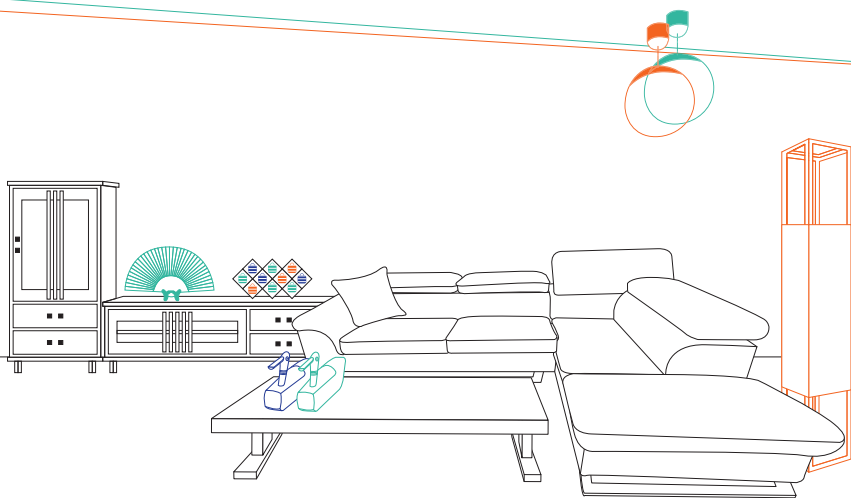


무형유산 산업화 특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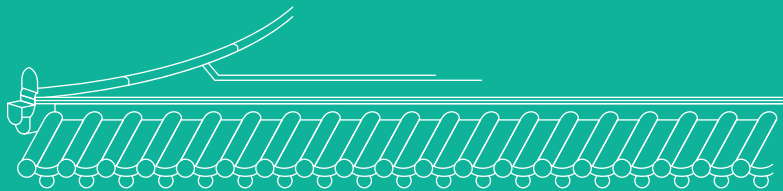
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



개막식 : 10. 18. 13:00

2022. 10. 18.(화) ~ 10. 24.(월)

카페 디자트 (디자트 가구,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45 1층)



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은 전주시와 문화재청이 지원하는
〈2022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〉의 일환으로,
장인들의 작품을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보는 특별전입니다.
전주 일반 가정집을 모티브로 하고,
그 안을 장인들의 작품으로 꾸며 전주의 전통문화를 일상으로 끌어들이습니다.
장인의 삶과 정신이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
다시금 부활되어 전주가 중심이 된
‘전통문화의 신 르네상스’를 견인하고자 합니다.

최근 전통을 찾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어
대부분의 장인들이 전통을 전승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
이번 전시를 통해 전주 장인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,
그들의 열과 혼이 일상의 공간에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.
더불어 크라우드펀딩(crowd funding) 형태로 실제 판매도 진행하여
지속적으로 장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
무형유산의 건강한 생태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.

전주 장인들의 작품으로 꾸며진 우리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

무형유산 산업화 특별전

우리집으로 들어온 전주무형유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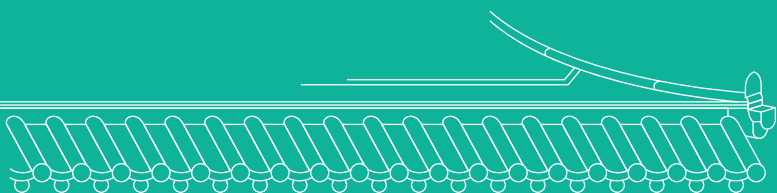


여기,

전주 장인의 마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.

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전주 장인은 오롯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.

이번 특별전에 함께 한 전주 장인을 소개합니다.



| 일시 : 2022. 10. 18.(화) ~ 10. 24.(월) [7일간]

| 장소 : 카페 디자트 (디자트 가구,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45 1층)